

## 日 대지진 1년...피해지역 경제 어디로

연말뉴스 | 기사입력 2012-03-08 16:39

서울대 일본연구소, 현지조사 성과발표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일본 대지진 이후 1년을 맞아 서울대 연구진들이 현지 조사를 통해 일본 동북부 지역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서울대 일본연구소는 8일 오후 교내 국제대학원에서 '동일본 재해현장에서 바라본 부흥의 딜레마' 심포지엄을 열었다.

연구소는 한영혜 국제대학원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동일본 대진재와 사회변동' 연구팀을 구성해 올해 1~2월 집중 피해지역인 미야기·이와테·후쿠시마현에서 관공서와 주민, 시민단체를 상대로 인터뷰와 자료수집 등 현지조사를 했다.

임채성 일본연구소 HK교수는 미야기·이와테·후쿠시마현의 산업구조에 대한 대지진의 영향을 분석한 발제문 '동일본대진재와 산업구조의 전환'에서 "향후 몇 년에 걸쳐 공공사업 증가, 신규주택 건설 등으로 인한 건설업의 성장이 눈에 띌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이는 관련 산업의 매출액 증가를 동반하게 되고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 민간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기간에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기간 경제성장의 정체 현상이 나타날 것"고 전망했다.

이어 "지반이 1m 이상 침하한 곳이 상당히 있고 쓰나미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해 산업시설의 내륙 이전이 불가피하다"며 "의료산업, 그린에너지 산업 등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야기현의 교통 및 상권 분석을 토대로 '도호쿠 지방의 지역체계 변화'에 대해 발표한 이호상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는 "대지진 이후 소단위 지역상권, 특히 역세권과 골목상권 등이 붕괴하고 대형점, 체인점 중심의 상권 재편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연안부에 재해부흥거점을 선정해 이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동일본 지역의 탈원전을 둘러싼 실천의 의미'와 '천황의 피재지 방문에서 생각하는 희망의 조건' 등을 주제로도 발표가 진행됐다.

kimhyoj@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정의화 주호영 공천될듯..강남벨트 대거 물갈이(종합)

☞ <80년전 시간여행..무성영화 '청춘의 십자로'>

☞ <손수조 "당 일각 공천 반발, 예상했던 일">

☞ 고교축구 '아디다스 올인 챌린지리그' 10일 개막

☞ 일본산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출 급증(종합)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이 기사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5545599>

---

**인쇄하기** 취소